

시설원예농업의 경제적 가능성

김 영 식

고려대학교 자연자원대학

개방화에 대응한 우리농업의 진로는, 여러 측면에서 그 가능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우리는 최근 화란의 고기술 시설원예산업에 대한 성공적인 결과 만을 보고, 화란의 농업형태를 우리농업의 진로로 선택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나라의 정책경험을 우리농업에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타당성 분석과 그러한 정책이 성공할 수 있게 된 요인을 종합적인 차원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인식으로부터 중요하다 판단되는 몇가지 내용을 지적하고자 한다.

1. 첨단 또는 현대화된 시설원예의 경제성에 대한 우리나라의 자료는 아직 가용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자연조건, 기술조건을 고려한 시설원예경영에 대한 신빙성 있는 기술적인 자료가 가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화란의 농업경제 연구원이 표본조사한 자료로부터 시설원예 경영에 대한 중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화란의 평균적인 온실농장의 규모는 1ha를 약간 넘고, 약 1.4호의 농가가 공동으로 경영하고 있음(호당온실규모 0.8ha).
- 온실 ha당 노동투하량은 5.3인이고, 이중 고용노동이 2.9인임.
- 온실 ha당 시설 및 장비의 투자비는 6.8억원이고, 이중 자기자본이 3.9억원으로 자기자본 비율이 57%임.
- 온실 ha당 조수입은 약 3.3억원이고, 소득은 6.2천만원임(호당소득 4.8천만원)

2. 시설원예의 경제성에 영향을 가장 중요한 비목은 온실시설투자비인 것으로 판단된다.

- 화란 자료에 의하면 (91년 봄 기준) 화란 내에서 온실의 평당 설치가격은 1ha 시설규모의 경우 23만~25만원, 2ha 시설규모의 경우 20만~21만원 수준이다.
- 최근 미국, 이태리 등에서의 화란온실 수입설치가격은 m² 당 100\$(평당 26만원) 수준이다.
- 우리나라 농민들이 근년 도입계약한 온실설치비는 화란농민들 구입가격의 2배를 넘는 평당 50만원 수준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3배가 넘는 경우도 있다.
- 국내의 온실수요 농민은 수입온실에 대한 가격정보가 대단히 불완전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수입온실에 대한 정상적인 가격이 형성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우리나라에서 화란형 시설원예의 경제성을 좌우하는 주요비목을 화란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노력비와 연료비는 우리가 유리한 편이지만, 암면·비료비·감가상각 및 시설유지비·자본이자·판매유통비 등은 우리나라가 화란에 비해 2~3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이로부터 우리나라에서

화란형 시설원예의 경제성은 현재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시설, 압면, 비료 등의 가격조건에 좌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화란형 시설농업은 소수작목에 특화되어 있고, 대규모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이러한 시설농업의 발전은 수출이 전제되어야 한다.

- 원예산업을 수출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내외 무역업자들이 모여드는 수출시장을 국내 생산지역에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화란의 경매장은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하는 시장이다.

- 화란의 경우 농민들은 대부분이 경매장을 중심으로 20km 범위 내에 위치해 있고, 경매장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은 바로 수출로 연결된다. 어느 한 경매장의 자료에 의하면, 연간 거래액이 약 9천억원이 되고, 약 600여명의 무역업자가 모여 있다.

- 이러한 수출시장의 형성을 고려하지 않은 화란형 시설원예의 확대는 생산에는 성공할 수 있더라도 판매문제가 어려워질 것이다.

- 화란의 농업총생산액은 200억\$이지만, 농산물 총수출액은 300억\$이나 된다. 화란의 농업은 중요수출산업이고, 중요수출품목의 생산단지에는 수출공단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고기술·수출농업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추진해온 수출공단의 육성과 같은 차원에서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있을 때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고기술·시설농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기존시험장과 연구소의 성격, 연구내용, 그리고 농가기술지원체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화란의 연구기관은 크게 연구원(institute)과 연구소(Research Station) 또는 시험장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연구소는 품목별로 전문화되어 있고, 주산지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연구소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농민들의 소유이고,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 고기술농업을 위해서는 유능한 농민을 확보한다기 보다, 부지런하고 성실한 농민들이 자기 지역에 위치한 전문적인 연구소로부터 기술을 지원 받고, 경험을 통하여 기술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지원체제의 개선이 더욱 중요하다. 화란의 품목별 생산단지내에 위치한 실용적인 연구소의 역할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농업기술의 개발 또는 혁신은 당연히 중요하다. 기술개발의 중요성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나라에서나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고기술과 수출농업의 가능성과 어려움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화란의 수출농업기술은 100여년이 걸린 결과이다. 농업기술개발은 앞으로 꾸준히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지만, 기술개발로 5년 또는 10년 이내에 우리농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너무나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경제개발이 시작되면서부터 자동차와 전자제품산업 등을 국가기간산업으로 중점적으로 지원해 왔다. 20~30년이 지난 지금, 왜 아직 Sony 라디오기술은 물론 자동차 문걸이 기술 하나 일본을 따라가지 못하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시설원예기술은 물론 농업기술의 개발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